



갈보리산 가는 행렬, 베르나르도 카발리노, 크라이슬러 미술관

그분은 돌이키지 않으셨다

구 주는 갈보리라 불리는 언덕에 이르셨습니다.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보는 가운데, 그분의 상한 몸이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. 사람들은 그분을 무자비하게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을 퍼부으며 비웃었습니다.] ...

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그분의 생명은 꺼져 갔습니다. 구주는 바싹 말라버린 입술로 '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' 하는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습니다.] ...

구주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수도 있으셨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구하시려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. 생명이 끊긴 그분의 육신은 빌린 무덤에 신속히, 그러나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.”

토마스 에스 몬슨(1927~2018) 회장, “주님 다시 부활했네!”, *리아호나*, 2010년 5월호, 89쪽, 번역 수정.

개인적으로 적용하기: 구주께서는 고통스러운 아픔과 고독, 절망을 겪으셨으나 지상에서의 여정을 품위 있게 견디고 완수하셨다.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 달라며 부탁까지 하셨다. 그분의 완전한 모범에 힘입어,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다.

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

“그 분이 하신 일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육으로 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예수께서는 신성한 속성을 이어받으셨습니다.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,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. 이 지상에 살면서도 죄가 없었던 유일한 사람으로서, 영적인 죽음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. 신성으로 인해 육체적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또한 지니셨습니다.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. 그분은 죽음의 차가운 사슬을 끊으셨습니다. 또한, 성신의 은사를 통해 우리가 가장 훌륭하고 평화로운 위안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.”

제임스 이 파우스트(1920~2007) 회장, 제일회장단 제2보좌, “속죄: 우리의 가장 큰 희망”, *리아호나*, 2002년 1월호, 20쪽, 번역 수정.

개인적으로 적용하기: 구주께서는 속죄를 이루시어 사망의 줄을 푸셨으며,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속하셨다. 그분은 그 벽차고 불가능한 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셨다.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때, 우리는 구주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안을 얻을 수 있다.



예수님의 매장, 칼 하인리히 볼프호